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32호, 2024. Vol.9 No.3

집합주택의 공간계획을 위한 교육콘텐츠 선호도연구

Study on Preferences for Educational Content for Space Planning in Multi-Family Housing

주 저 자 : 유지원 (Yu, Ji-won)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석사과정

공 동 저 자 : 조성기 (Cho, Seong-ki)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석사과정

공 동 저 자 : 노정훈 (Noh, Jung-hun)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석사과정

공 동 저 자 : 강승만 (Kang, Seung-man)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정희정 (Jeong, Hee-Jeong)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부교수
publicdesign@skuniv.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4.3.568

접수일 2024. 08. 25. / 심사완료일 2024. 09. 01. / 게재확정일 2024. 09. 09. / 게재일 2024. 09. 30.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literature and precedent cases of Korean and foreign multi-family housing to study the impact of integrating educational contents and space planning in collective houses on residents' liv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Korean multi-family housing that can increase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using SPSS 28.0.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was conducted through a structured online questionnaire, confirmed that resident demand-driven Educational program management can increase resident engagement and housing satisfaction, and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sustainable multi-family housing and educational community spaces.

Keyword

집합주택(Multi-Family Housing), 공간계획(Space Planning), 교육콘텐츠(Educational Contents)

요약

본 연구는 집합주택에서 교육 콘텐츠와 공간계획의 통합이 거주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국내·외 집합주택의 문헌자료와 선행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국 집합주택 내에서 교육 환경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전문가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SPS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자 수요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용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거주자의 자발적인 참여도와 학습의지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집합주택과 교육형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집합주택 개념 및 정의
2-2. 집합주택에서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2-3. 집합주택에서 교육콘텐츠의 개념 및 필요성

3. 집합주택에서 교육콘텐츠를 적용한 공간계획 선행사례

3-1. 국외 사례
3-2. 국내 사례
3-3. 소결

4. 설문조사 및 분석

4-1. 설문조사 범위와 방법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조사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집합주택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주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적 필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주거 공간 내에서 학습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집합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및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교육적 평등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연계된 공간 계획에 대한 연구는 거주자들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집합주택에서는 교육 콘텐츠의 제공과 공간 배치가 주로 운영 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거주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국의 주거 환경에 교육 콘텐츠를 실제로 적용할 때 요구되어야 하는 기획 관점에 대해 정리하여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며 교육과 생활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의 특수한 집합 주택 내에서의 교육 환경 개선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공공 개방영역 및 공개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선행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대상지의 현황조사 및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집합주택의 커뮤니티 환경 현황조사 및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동향 조사도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기업의 집합주택 커뮤니티 환경 제안서를 조사 분석하여 시대적 니즈에 최적화된 커뮤니티 환경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는 집합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의 과학기술 기법과 연계된 콘텐츠 및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특이한 몇 개소의 지방 도시 사례도 그 범위로 덧붙였다. 이러한 선례와 선행연구조사는 이후 1차 전문가집단 심층 면접을 통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차 전문가집단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1차 심층 면접 때 과제의 목적에 대한 대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위한 정량적 10개 평가지표와 정성적 5개 평가지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축했다. 이후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은 3차 전문가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2022년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ZOOM]회의로 진행되었다.

구조적인 설문조사 문항 개발은 분야별 교수집단 4인에게 검증받았으며 이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완료한 후 구글 폼을 이용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 조사지를 통해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총 89부를 통계프로그램 SPS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비용 등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형 집합주택의 교육환경 커뮤니티 공간의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집합주택 개념 및 정의

집합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또는 단지 내에서 거주하는 주거 형태이다.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1] 이러한 집합주택은 주거지의 밀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중요한 주거 해결책으로 자리 잡았다.

집합주택의 정의와 종류는 국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데 서구에서는 "Multi-Family Housing" 또는 "Collective Housing"으로 지칭하며 계획 단지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집합주택 유형은 높이에 따라 크게 저층 집합주택 유형과 고층 아파트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유형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집합주택은 단순히 주택의 집합체라고만은 정의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사회생활이 발생하고 생활공간이 만들어지며 단지 내 문화가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

1) 주택법 제2조 제2호

(community)이다.[2)]

집합주택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단지는 고밀도의 주거자들을 수용하는 대단위의 집합주택으로서 공동 설비, 상가, 휴식 및 휴게 시설, 녹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한 이점을 가진다. 또한 도심과 근접한 공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고 고층화로 확보하는 공간을 공공복리의 장소로 활용해 주거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도시 주거 환경에 있어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주자들의 수요이자 의식이 됨에 따라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에 있어 커뮤니티는 중요한 사회적 단위가 되었다. 커뮤니티 중심으로 조성된 집합주택은 사회, 경제, 물리적 문제를 커뮤니티 중심으로 인식, 해결하며 삶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요구받는다.[3)]

2-2. 집합주택에서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 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집합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은 전체의 생활 형태를 확립하는 반(半)공공적 존재이다.[4)]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은 생활공간으로서 인간의 정주 환경을 형성하며 여가시간의 증가로 주거 환경 내에서의 문화적 성격의 시설 요구가 높아졌고 개인 고립의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웃과 접촉하는 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커뮤니티 공간은 일상생활에서 거주자들의 기본적 요구를 수용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지속적 거주 장소이다.[5)] 커뮤니티 공간에서 거주자들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을 통해 공동생활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행위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집합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공간계획에 있어 거주자들의 높은 수요를 얻는 공간은 교육환경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다.[6)]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진되면서 집합주택 거주자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단지 내 교육시설이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교육 커뮤니티 시설은 성장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된다.[7)] 또한 또래 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바람직한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조적 활동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은 아동,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등 거주자들의 수요와 니즈에 따라 집합주택의 공간은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3. 집합주택에서 교육 콘텐츠의 개념 및 필요성

교육 콘텐츠의 개념은 사용자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육의 기대치를 자연스럽게 획득하도록 고안된 교육 방식의 일환이다. 교육과 놀이의 가치가 결합되면서 교육 콘텐츠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라는 합성어로 부르기도 한다.[8)] 전통적인 교과서나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체험 학습, 놀이와 같은 비형식적인 학습 활동도 교육 콘텐츠의 종류에 포함된다.

지식기반사회의 전환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원초적이고 일방적인 교육 환경의 제공에서 벗어나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에 수요를 가지게 된다.[9)] 집합주택에서 교육 콘텐츠는 거주자 개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경제,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들이 교육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회의 교육적 평등을 실현시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듯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거주지 내 교육 콘

2) 조성희, 강혜경,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001.11, Vol.12, No.4, pp.21

3) 정소원, 거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공간 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7

4) 오휘영, 이주형,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 및 녹지시설 이용 실태분석을 통한 설계 개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08, Vol.5, No.4, pp.63-73

5) Hall and Porterfield, Community by Design, McGraw-Hill Companies, 2001.

6) 어성신, 공동주택 아동커뮤니티시설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10. pp.178

7) 임용민, 아파트 단지 내 아동 유희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12, Vol.14, No.6, pp.59-60

8) 김민정, 황지현, 국내외 사례를 통한 모바일 교육 콘텐츠 연구 - 국내와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007. Vol.15, p.82

9) 허혜경 외 2명, 『평생교육학개론』, 창지사, 2007, pp.50-51

텐츠의 기획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집합주택에서 교육 콘텐츠를 적용한 공간 계획 선행사례

3-1. 국외 사례

집합주택에서 교육 콘텐츠를 적용한 공간 계획의 국외 선행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집합주택에서 교육 콘텐츠를 적용한 공간 계획의 국외 선행사례

국외 선행사례	설명
Vauban 지구, 독일	생태적 건축과 자원 절약을 강조하는 주거지로, 친자연형 교육시설과 놀이공간을 주거지와 밀접하게 배치하여 아이들이 생활공간과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10]
Bo01 단지, 스웨덴 말뫼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폐조선소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조한 주거지이다. 이 단지는 제로에너지타운으로, 자연학습 공간과 에너지 절약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11]
BedZED, 영국 런던	BedZED(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는 세계 최초의 탄소 배출 제로 주거 단지다. 단지 내 생산된 자체 에너지로 생활하고, 실내외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12]
Kronsberg, 독일 하노버	환경 교육과 커뮤니티 중심의 학습 공간을 강조한 주거단지로, 주민들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 학습하고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였다.[13]

10) 박천규, 강성우, 독일의 친환경주택 패시브하우스, 보봉(Vauban) 생태주거단지, 국토연구원, 2019. 04. Vol.4, pp.69-71.

11) 허효성, 이성창, 김도년, 주거단지계획에 있어서 환경 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 06. Vol.12, No.3, pp.129-131

12) 문선기, 김세용, 김지윤, 박근철, 영국의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04. pp.130-131

13) 신성은, 김수암, 패시브 하우스의 디자인 기법과 기술 성능에 관한 연구 : 유럽 패시브 하우스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04. pp.328-329

3-2. 국내 사례

집합주택에서 교육 콘텐츠를 적용한 공간 계획의 국내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구미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경상북도 구미시

[그림 2] 신촌숲 아이파크, 서울시 마포구

구미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영어교육 회사와 협력하여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회사로부터 나이별, 수준별로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받아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고 있다.[14]

신촌숲 아이파크는 2022년부터 관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코딩 분야의 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코딩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15]

[그림 3] 동네방네 늘봄교실, 충청남도 아산시

[그림 4] 독서지도 프로그램, 부산시 부산진구

아산교육지원청은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의 인근 5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여 학교-마을-교육지원청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돌봄 안전망 "동네방네 늘봄

14) 임이랑, 'YBM넷, 아파트 입주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라이센스뉴스, 2021.11.08. (2024.08.17.)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89

15) 코딩아틀리에 유아 놀이코딩 교육 현장 (신촌숲아파트), (2024.08.17.). https://blog.naver.com/complaylab/223066161348

교실"을 구축하였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영어 회화, 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질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16]

부산시 부산진구는 관내 아파트 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초등학생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주 목요일 12회에 걸쳐 토론하고 발표하는 독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장려 및 화합하고 배려하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냈다.[17]

3-3. 소결

국외 집합주택의 사례에서는 친환경공간에 교육 콘텐츠를 연계하는 공간계획기법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나아가 주민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아이들이 친자연적 가치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사례는 교육 콘텐츠와 공간계획의 통합이 지속 가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국내 집합주택의 사례에서는 커뮤니티 공간계획이 부재한 기존의 주거 공간에서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기획, 개발한다면 집합주택에서의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미시 구미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와 신촌숲 아이파크는 전문적인 외부 교육 업체와 협력하여 영어, 코딩 등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현했다. 아산교육지원청과 부산진구청은 관내 아파트 내 시설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공동체와 평등 교육의 가치를 더했다. 이들 사례는 거주 지역 내 교육환경 실태 조사와 거주자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국내외 교육 콘텐츠를 적용한 공간계획의 사례들을 통해 공간계획과 교육 콘텐츠의 긴밀한 연계가 거주자들의 삶을 위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아산데스크, '아산교육지원청,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활용 '2024 학교 밖 동네방네 늘봄교실' 개소', 아산데스크, 2024.05.10. (2024.08.17.) http://www.asandes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66

17)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본부, '부산진구, 아파트 도서관 활용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부산일보, 2016.08.01. (2024.08.17.)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801000204

4. 설문조사

4-1. 설문조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도시형 집합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 동안 총 89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통계프로그램 SPS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교육환경의 실태와 집합주택 내 교육 커뮤니티 공간 및 교육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직업, 거주지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40대 31명(34.8%), 50대 27명(30.3%), 30대 이하 22명(24.7%), 60대 9명(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직장인과 공무원이 각각 20명(23.0%), 전문직 18명(20.7%), 기타 17명(19.5%), 전업주부 12명(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가 48명(53.9%), 서울특별시 21명(23.6%), 광역시 8명(9.0%), 전라도 6명(6.7%), 경상도 3명(3.4%), 충청도 2명(2.2%), 강원도 1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30대 이하	22	24.7
	40대	31	34.8
	50대	27	30.3
	60대	9	10.1
크기의 변화	직장인	20	23.0
	공무원	20	23.0
	전문직	18	20.7
	전업주부	12	13.8
	기타	17	19.5
개념의 양극화	서울특별시	21	23.6
	광역시	8	9.0
	경기도	48	53.9
	강원도	1	1.1
	충청도	2	2.2
	전라도	6	6.7
	경상도	3	3.4
전체		89	100.0

4-3. 조사 분석

4-3-1.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주변 환경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과정 29.2%, 지도자 24.7%, 비용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구분	표본수(명)	비율(%)
주변 환경	37	41.6
비용	4	4.5
지도자	22	24.7
교육과정	26	29.2
전체	89	100.0

4-3-2. 공교육과 사교육 중 더 신뢰하는 것

공교육과 사교육 중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공교육이 60.7%, 사교육이 39.3%로 공교육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사교육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다소 많았다.

[표 4] 공교육과 사교육 중 더 신뢰하는 것

구분	표본수(명)	비율(%)
공교육	54	60.7
사교육	35	39.3
전체	89	100.0

4-3-3. 공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공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 [표 5]와 같이 '시스템의 변화 필요'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14.9%, '수준이 낮고 부족하다', '형식적이다' 각각 12.8%, '필수적이다' 8.5%, '체계적인 수업', '공교육 활성화 필요', '기본 학업 및 사회성 학습을 위한 교육' 각각 6.4%, '교육비 문제', '창의적인 교육활동'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공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

구분	표본수(명)	비율(%)
수준이 낮고 부족하다	6	12.8
형식적이다	6	12.8
체계적인 수업	3	6.4
시스템의 변화 필요	11	23.4
필수적이다	4	8.5
교육비 문제	2	4.3
공교육 활성화 필요	3	6.4
창의적인 교육활동	2	4.3
기본 학업 및 사회성 학습을 위한 교육	3	6.4
기타	7	14.9

4-3-4. 사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

사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기타'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준이 높은 맞춤형 교육 진행' 17.8%,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 보완', '과도한 교육비' 각각 15.6%, '체험, 취미, 예체능 교육 필요' 11.1%, '경쟁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 방지 필요' 6.7%, '필요하다'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사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

구분	표본수(명)	비율(%)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 보완	7	15.6
수준이 높은 맞춤형 교육 진행	8	17.8
과도한 교육비	7	15.6
체험, 취미, 예체능 교육 필요	5	11.1
경쟁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 방지 필요	3	6.7
필요하다	2	4.4
기타	13	28.9

4-3-5. 학습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학습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7]과 같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체 활동 13.8%, 기타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학습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구분	표본수(명)	비율(%)
단체 활동	12	13.8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73	83.9
기타	2	2.3
총계	87	100.0

4-3-6. 초, 중,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초, 중,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공교육만으로는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들이 다 하기 때문 13.5%,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어렵기 때문 6.7%, 예습, 복습 때문 4.5%, 교육과정 이외의 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과 기타 각각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초, 중,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

구분	표본수(명)	비율(%)
예습, 복습 때문	4	4.5
공교육만으로는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	61	68.5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어렵기 때문	6	6.7
남들이 다 하기 때문	12	13.5
교육과정 이외의 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	3	3.4
기타	3	3.4
총계	89	100.0

4-3-7. 평소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

평소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 [표 9]와 같이 학원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이 32.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과외 9.8%, 기타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평소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 (복수 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학원	57	55.9
과외	10	9.8
자기주도학습	33	32.4
기타	2	2.0
총계	102	100.0

4-3-8. 자녀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자녀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0]과 같이 학습 집중도를 높여주는 학습 매니저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별 학습 이해도에 맞춘 스케줄 매니저 37.1%, 목표 진로, 대학을 위한 컨설팅 18.0%, 기타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녀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구분	표본수(명)	비율(%)
개별 학습 이해도에 맞춘 스케줄 매니저	33	37.1
목표 진로, 대학을 위한 컨설팅	16	18.0
학습 집중도를 높여주는 학습 매니저	39	43.8
기타	1	1.1
총계	102	100.0

4-3-9. 단지 내에 교육 취미 커뮤니티의 필요성

단지 내에 교육 취미 커뮤니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1]과 같이 필요하다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 27.0%, 보통 15.7%, 필요하지 않다 5.6%의 순으로 나타나, 78.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단지 내에 교육 취미 커뮤니티의 필요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24	27.0
필요하다	46	51.7
보통	14	15.7
필요하지 않다	5	5.6
총계	89	100.0

4-3-10.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은 이유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2]와 같이 거주지와 가까워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퇴근 시간까지 아이들의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18.0%,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와 자율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은 이유 (복수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15	12.3
거주지와 가까워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70	57.4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의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22	18.0
자율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15	12.3
총계	122	100.0

4-3-11.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3]과 같이 사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좋은 교육 콘텐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8.8%, 교육 환경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1.2%,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5.2%, 기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좋은 교육 콘텐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9	28.8
사교육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22	33.3
교육 환경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4	21.2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0	15.2
기타	1	1.5
총계	66	100.0

4-3-12.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생겼으면 하는 커뮤니티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생겼으면 하는 커뮤니티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4]와 같이 독서토론 교육(독서, 논술, 토론 등)과 예체능 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이 각각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미 생활 계발 활동(베이킹, 뜨개질 등) 16.2%,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과 디지털 교육(코딩, 빅데이터, 3D 프린트 등) 각각 12.7%, 1인 미디어 교육(크리에이터 교육,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등) 11.6%,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 9.2%, 기타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생겼으면 하는 커뮤니티 (복수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22	12.7
1인 미디어 교육(크리에이터 교육,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등)	20	11.6
디지털 교육(코딩, 빅데이터, 3D 프린트 등)	22	12.7
독서토론 교육(독서, 논술, 토론 등)	32	18.5
예체능 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	32	18.5
진로탐색 중심의 교육	16	9.2
취미 생활 계발 활동(베이킹, 뜨개질 등)	28	16.2
기타	1	.6
총계	173	100.0

4-4. 소결

집합주택이 중심이 된 현대 주거 환경에서 거주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교육 콘텐츠에서 [표 3]과 같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변 환경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국외의 교육 콘텐츠를 적용한 공간 계획의 선행사례를 조사하여 이는 [표 4]와 같이 공교육이 60.7%, 사교육이 39.3%로 공교육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사교육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다소 많았고, [표 5]와 같이 공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요'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교육 콘텐츠 및 교육 커뮤니티에 대한 실제 만족도와 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그 결과 사교육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기타'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 8]과 같이 공교육만으로는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68.5%, 평소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학원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결과 [표 10]과 같이 학습 집중도를 높여주는 학습 매니저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 교육 취미 커뮤니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이 필요하다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이 거주지와 가까워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3]과 같이 사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 교육 커뮤니티가 생긴다면 생겼으면 하는 커뮤니티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4]와 같이 독서토론 교육과 예체능 교육이 각각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교육 콘텐츠 및 교육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가 사회성을 중심으로 공교육만이 아닌 사교육을 포함한 단지 내 안전한 커뮤니티 속에서 자녀 맞춤 학원과 매니저를 포함 한 교육 콘테츠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느 지속 가능한 한국 집합주택 문화와 주거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주거 공간과 교육 콘텐츠의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알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습 의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요 방향의 교육형 커뮤니티 공간구축의 필요성도 알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규정하고 조사한 교육 콘텐츠의 범위가 초, 중, 고등학생 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대학 입시는 한국 거주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독자적이고 특수한 생활 방식이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교육형 주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먼저 교육 콘텐츠의 향유자를 청소년 연령대의 학생에서 전 연령층으로 넓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집합주택 내 모든 거주자들이 본인의 학습 의지와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단지 내 교육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에 대해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 콘텐츠 공간 계획을 실내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집합주택의 기존 공용 공간 및 외부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국외 선행사례처럼 환경 친화적인 교육 콘텐츠를 공간 계획에 접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향후 연구로 주민 전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수요를 조사하고, 집합주택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환경 친화적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실제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고려해 교육형 주거 모델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허혜경 외 2명, 『평생교육학개론』, 창지사, 2007
2. 김민정, 황지현, 국내외 사례를 통한 모바일 교육 콘텐츠 연구 - 국내와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007
3. 박천규, 강성우, 독일의 친환경주택 패시브하우스, 보봉(Vauban) 생태주거단지, 국토연구원, 2019
4. 문선기, 김세용, 김지윤, 박근철, 영국의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5. 신성은, 김수암, 패시브 하우스의 디자인 기법과 기술 성능에 관한 연구 : 유럽 패시브 하우스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6. 어성신, 공동주택 아동커뮤니티시설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7. 오휘영, 이주형,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 및 녹지시설 이용 실태분석을 통한 설계 개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8. 임용민, 아파트 단지 내 아동 유희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
9. 조성희, 강혜경,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001
10. 허효성, 이성창, 김도년, 주거단지계획에 있어서 환경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
11. Hall and Porterfield, Community by Design, McGraw-Hill Companies, 2001
12. 정소원, 거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공간 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3. 주택법 제2조 제2항(2024. 1. 16. 법률 제20048호로 개정된 것).
14. http://www.asandesk.co.kr
15. https://www.busan.com
16. https://www.lcnews.co.kr
17. https://www.naver.com